



STAR'S EDGE INTERNATIONAL®



아바타® 마스터 코스



이 책자의 모든 사진들은 실제 아바타
코스 및 아바타 행사들을 찍은 것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전 그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컨다리들을
해소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다. 나는 내
삶을 위해 정말 하나의 새 현실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 이 능력이 담고 있는 뜻은 엄청나다.

버지니아 K. 스미스

아아! 이 무슨 일인가? 여태까지 내가 현실이라
여겨 온 것 속으로, 내가 슬며시 녹아 들었다가는
빠져나오기를 거듭하고 있으니... 방 전체가 분해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울려들었다.
건너편에 앉은 사람이 배경 속으로 혼연 섞여들어
잠시 동안 이 현실 속에 존재하기를 그쳤다. 얼굴을
줄줄 흘려내리는 눈물을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과의 완전한 조화의 느낌 속에서,
그저 절대의 그대로를 남김없이 맛보았다. 분명히,
나의 삶은 이제 결코 전과 같을 수가 없다.

모리스 테클렌더

나는 잡동사니로 가득찬 한 생 - 몇생일지도 모른다
- 의 뚜껑을 열어 젖혔다. 그리도 오랜동안 스스로
부정해 오다보니 그것을 내가 지어냈었다는 것조차
잊고 있던 느낌들을 경험했던 것이다.

지인 터커

이 코오스는 그야말로 주옥같다, 모든 면에서
그것은 질고 오묘한 경험이었다.

류린 아시아니안

무슨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나?

마스터 코오스는 잡지 아바타 저널 1988년
12월/1월호에 실은 해리 팔머의 편지를 통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마스터 코오스의 목적은 아바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들의 근원을 잘 알고 그것을 뜻대로 부릴 수 있게 되도록 안내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권유는 진정한 마스터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한 아바타로서, 당신의 나그네길은 끝났습니다. 그리도 오래 찾아 헤맸던 본원의 자리는 정말 황홀하겠지요. 그 유원지를 즐기십시오. 실로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저 어쩌면 말입니다, 당신이 아바타 교제들을 세상에 보급하는 일을 돕고자 할지도 모르지요, 당신이 이제 아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당신이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을 모든 사람이 갖는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려하니....

24년이 지나자 아바타 네트워크는 온 세계로 퍼져, 수만의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집합의식의 미로가 모두 밝혀지면,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 “내가 왜 아파타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당신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는지?”
- “꿈에서 아파타가 내게로 왔다. 먼저 사람들을 보았고 그러자 채희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다.”
- “어떤 영능자에게 갔다. 트랜스 상태에서 그녀가 내게 당신은 곧 아파타를 하게 된다고 했다. 깨어나서 그녀는 내게 ‘아파타가 뭐지요?’하고 묻는 것이었다.”
- “나는 항상 내가 마침내 하게 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파타가 나타났을 때 나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밖의 것들은 모두 그저 그 때에 이르기까지의 심심풀이였다.”

“의식의 역사를 통틀어, 불가사의한 창조의 미로를 더듬어 나가 삶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존재는 그저 어쩌다 하나씩 있었을 뿐입니다.”

“성직자와 성자의 너울을 쓴 사람들은 줄곧 수없이 있어 왔지만, 그들은 스스로 무지하거나 또는 더욱 사악한 생각에서 사람들을 끌어, 다만 정교하게 짜놓은 목적들을 위해 정교하게 꾸며낸 신념체계를, 곧 본집에서 멀리 떨어진 슬픔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게 해 왔을 뿐입니다.”

- “아파타를 하기 전의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히 좌절한 구도자였다.”
- “나는 한 스승을 모시고 12년을 지냈다. 매일 매일 10시간을 일했다. 어느날 나는 문득 신념 너머를 보았다. 그리고 동료 제자들을 보자 우리가 그저 값싼 노동력에 불과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밝은 지구 문명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것은 태조 이래 유정 생명체의 한결같은 목표입니다. 경쟁적인 적자생존의 진화 단계는 그 필요과정을 다 거쳤으니, 이제는 이성적인 협동사회로 바뀌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바타 마스터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바로 이 사회를 위한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스타즈 에지 인터내셔널은 각 개인의 연합인, 이 날로 자라는 네트워크에 따르는 여러가지 일들을 보살피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사악한 자가 마스터의 만배나 되는, 배신과 사기가 판치는 땅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교묘히 꾸며놓은 의식으로 부를 쌓은 인생 전문가들의 단점을 어지럽히는 악몽입니다.”

“당신은 빛을 가져다 주는 사자입니다.”

“당신은 참에 대한 참을 지니고 다닙니다.”

“환영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그들은 오직 자신의 가망없음을 입증할 기회를 위해서만 당신이 지닌 참을 살피고 따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익지 않은 과일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바타는 그 가치를 수없이 스스로 입증해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깨달음의 의식상태에 이르기 위해 몇십년씩 수련을 하거나, 죽거나, 또는 어떤 인물이나 신념을 무조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잘 정리하여 하나의 코오스로 편성해서 돈을 받고 제공한다고 해서 이 의식상태의 성취가 약해지거나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바타 코오스는 의식 진화에서의 혁명적 도약이며, 미래의 인간사회 구조에 대한 심원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세계의 깨달은 사람들을 한손으로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만으로 헤아려집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전수되고 있는 아바타는, 인류가 여태껏 따르고 있는 그 자기파괴적 진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변화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잘 터득하십시오. 그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살펴보기 되도록 이끄는 방식으로 가르치십시오. 일단 살펴보기만 하면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길을 바꿀 까닭을 발견하게 되어 아름다운 의식의 어우러짐-오래오래 기다려온 변성-놀라운 구원 속으로 끌려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지닌 큰 진리의 힘입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보여 주십시오. 그것을 사심없이 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무적의 갑옷을 입혀 줄 것입니다.”

- “나는 1년이 넘도록 아바타를 비웃고 놀려 댔었다. 내가 해리 팔머에 대해 말했던 것들을 여기서 털어놓지는 않겠지만, 도널드가 아바타 코오스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보자마자 나는 깨달았었다. 문제는 아바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 “당신들이 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그대로 사랑이고 위함이라는 것을 보고나니, 나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굳었다.”

아바타의 전세계적 확산에는 하나의 독특한 면이 있으니, 그것은, 효과적인 정신기법과, 잘 훈련되고 잘 관리된 기업가들의 네트워크와의 결합이다. 이 영동한 결합이 여태까지 줄곧 이어져온 ‘영적 가르침은 자비심으로 거저 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다. 곧, 변명과 훌륭한 일(인류에적 노력)은 서로 따라다닌다는 것. 누가 뭐라 하든 이것은 확실하다.



“누구는 당신의 봉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가 가져온 돈을 공손히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내키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누구도 당신의 정직함을 헐뜯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정직성을 돌이켜 보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성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대중의식의 최고의 이상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의심이 지지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와 참에서 나오는 봉사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보다 훨씬 더 크게 당신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특권이고 보람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거대한 부와 권력이 당신의 결정에 맡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외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신념의 반영인데, 그것은 참된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낮은 의식의 뒤엎힘을 부추길 뿐임을 당신이 환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생활에서, 밤에는 꿈결에서 드러나는 당신이 배워야 하는 가르침들, 그것이 곧 당신이 쓰는 가장 강력한 약이요, 당신이 거느린 가장 유능한 장군이요, 당신을 돕는 가장 현명한 상담역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창조하는 풍요를 인간의 자기실현을 뒷받침하고 촉진시키는데 쓰십시오. ~~아파타를 창조하십시오.~~ 세상의 가르침들을 즐기십시오.”

“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음을.”

1987년 4월 2일
스타즈 에지사에서
해리 팔머



마 스 터 코 오 스

마스터 코오스는 9일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잊고 지내는 비상한 기간입니다. 이 코오스의 짜임새와 연습들이 깊이 묻혀 있는 문제들을 들추어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들은 처음에는 아주 압도적이고 견디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몇번 하고 나면 그저 자기 자신이 우스워 크게 웃게됩니다. 끝나는 주말이 되면 마치(과거의 그리고 계획된) 몇생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스터 코오스(아바타 교재 제 IV부)는 길으로는 보이지 않는 배후까지 다루며, 아바타 전수에서 부딪치는 현상과 결과들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봅니다.

잇따른 3번의 이니시에이션 과정과 몇시간의 끈질긴 아이덴티티 다루기를 거치면, 학생은 제 이름을 기억해내기도 어려운 상태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아바타 기법이 작용한다는 것과 근원의식의 무한하고 영원한 확대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밖의 기대되는 결과:

- 투명한 아이덴티티 열개를 찾아내어 소멸시키는 능력
- 개의를 창조 밖으로 돌리는 능력
- 저항해온 창조를 가려내어 다루는 능력
- 아바타 이니시에이션을 훌륭히 해내는 능력

“나는 드디어 내 이름에 응답하고 나서는 무한한 존재를 만났다.”

“나는 이제 내 열이 줄곧 나를 쿡쿡 찔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인간인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물아세워진 투쟁과 기진맥진해서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신념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이다.”

“한정없는 의식과 선택으로 살 때 삶은 보다 수월하고 더욱 우아하며 또 더욱 경쾌해진다.”

“나의 삶에서 드디어 나타난 이 평안이어.”

“나는 50가지의 워크샵을
해보았다. 3번의 아바타
코오스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것이, 이것이야말로 나의
코오스였다. 나는 여태까지
줄곧 내가 들어앉아 있던
무엇인가의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교재 내용의 보기

제 I편: 막후의 일

개인의 힘과 목표와는 어떤 관계에 있나?
좌절의 원인과 극복 방법은 무엇인가?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
모든 게임 또는 기업의 요소는 무엇인가?

제 II편: 아바타 코오스 실시

아바타 코오스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어려움의 바탕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느끼기를 멈추고 생각하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III편: 스타즈 에지 인터내셔널

스타즈 에지사는 어떻게 운영되며, 그 성공의 까닭은 무엇인가?
아바타 코오스 실시의 요구조건은 무엇인가?
새로운 창조를 기존의 창조 속으로 도입하는 방법은?
아바타 코오스 실시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제 IV편: 깨달음

뭔가를 소멸시키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끈질긴 덩어리의 해부학은?
자기의 창조 능력을 스스로 제약하게 되는 원인은?

제 V편: 마스터의 임재

창조력을 끌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기법은?
어떤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덴티티 패턴을 어떻게 바꾸는가?
의식으로서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까닭은?

“우리는 삶의 물결, 항상 지금 있으면서, 한방울 한방울이 놀랍게 서로 섞여 어울린다. 뒤는 그대로 역사의 자축이요, 앞에는 가능성이 있다.”

“가슴들이 서로 껴안고 사랑함을 알며, 또한 이 내적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안다.”

“아바타를 전수하는 것은 마치 삶의 알맹이와 더불어 춤을 추는 것과 같다.”



마스터 후보자들에게 해리가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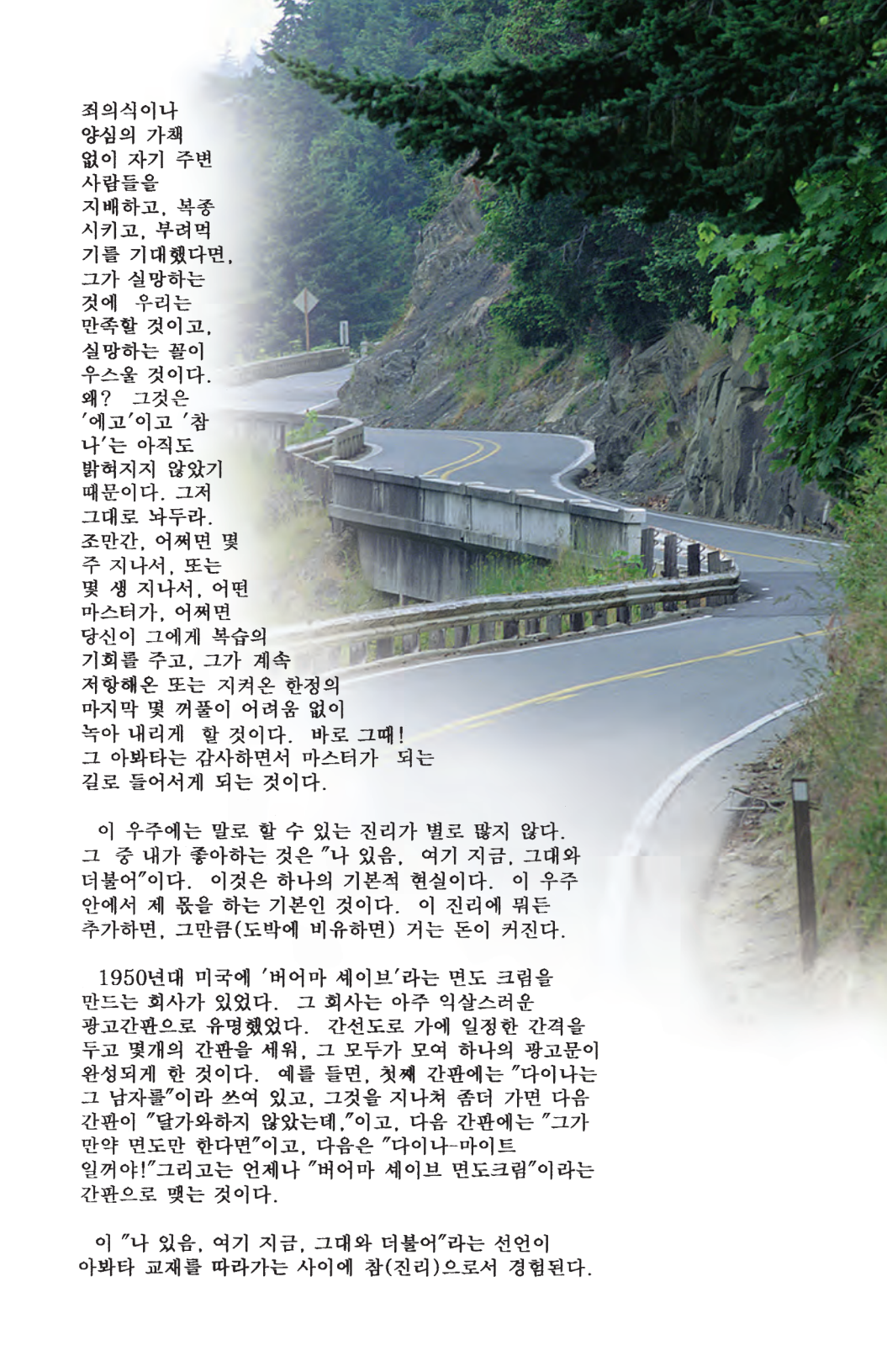
마스터 코오스는 삶에 통달하여 그것을 지배하게 되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자기제약의 껍질을 벗어나, 이 세계에 어떤 부조화나 혼란도 지어냄이 없이 사람들과 사물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당신은 세상 사람들의 조화와 사회의 질서의식 회복에 이바지하는 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통달은 외따른 산 꼭대기에서 이뤄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포기입니다. 통달은 바로 삶의 한가운데에서 이뤄집니다. 그것은 복새통에서 위로 솟아오름이요, 도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끊게 가라앉습니다. 통달과 지배는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의 응용입니다. 이 지혜를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또는 몇몇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또는 누군가 길을 아는 사람의 이끌음을 받아가며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아바타 코오스 수료자들이 마스터 코오스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이 여태까지 지속되어 온 저의 의도입니다. 아바타 코오스는 바로 마스터 코오스의 입구입니다.

아바타 코오스 제 I, II부 및 제 III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누가 무엇을 왜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창조를 해나가는지에 대한 보다 넓은 관을 지니게 된 학생이, "고맙소, 이제 그만하면 됐오."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을 보면, 나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좋은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병이 낫기 시작하자 그 치료를 중단해 버리는, 또는 캄캄한 굴 속을 빛을 찾아 입구까지 와서 해가 보이자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어쩌면 이걸 자기 신뢰의 문제일지 모른다. 또는, 스스로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뭏든, 그 모순을 당신은 알 수 있겠는지?

당연히, 우리는 학생이 결과적으로 실망하는 아주 드문 경우(현재의 아바타 코오스들의 질적 수준으로는 그야말로 드문 경우)를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실망한 길을 더 이상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살펴 볼 가치가 있다. 아바타들은 실망이 하나의 세컨다리라는 것을 안다. 대체 실망하는 사람은 왜 실망을 할까? 이 의문을 풀려면, 그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프라임마리가 무엇이었나? 그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한 까닭이 무엇인가? 만약 그가 자기만의 세상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대했다면, 또는 아바타를 마치고는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고, 복종
시키고, 부려먹
기를 기대했다면,
그가 실망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할 것이고,
실망하는 꼴이
우스울 것이다.
왜? 그것은
'에고'이고 '참
나'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그대로 놔두라.
조만간, 어쩌면 몇
주 지나서, 또는
몇 생 지나서, 어떤
마스터가, 어쩌면
당신이 그에게 복습의
기회를 주고, 그가 계속
저항해온 또는 지켜온 한정의
마지막 몇 끼풀이 어려움 없이
녹아 내리게 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아뵘타는 감사하면서 마스터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 우주에는 말로 할 수 있는 진리가 별로 많지 않다.
그 중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 있음, 여기 지금, 그대와 더불어"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현실이다. 이 우주
안에서 제 몫을 하는 기본인 것이다. 이 진리에 뭐든
추가하면, 그만큼(도박에 비유하면) 거는 돈이 커진다.

1950년대 미국에 '버어마 셰이브'라는 면도 크림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다. 그 회사는 아주 익살스러운
광고간판으로 유명했었다. 간선도로 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몇개의 간판을 세워, 그 모두가 모여 하나의 광고문이
완성되게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첫째 간판에는 "다이나나는
그 남자를"이라 쓰여 있고, 그것을 지나쳐 좀더 가면 다음
간판이 "달가와하지 않았는데,"이고, 다음 간판에는 "그가
만약 면도만 한다면"이고, 다음은 "다이나-마이트
일꺼야!"그리고는 언제나 "버어마 셰이브 면도크림"이라는
간판으로 맺는 것이다.

이 "나 있음, 여기 지금, 그대와 더불어"라는 선언이
아뵘타 교재를 따라가는 사이에 참(진리)으로서 경험된다.

맨 처음 경험하는 간판은 "나 있음"이다. 그리고는 조금 더 나가면, 자기 자신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있음을 경험하니 곧 "여기", 공간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는 제 III부가 끝나가는 언저리에서, "지금" 곧 영원을 경험한다. 이렇게 아봐타 코오스를 마친 사람은 "나 있음, 여기 지금"과의 깊은 영적 만남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은 '나 깨달음'이다. 이 경계에 사람은 아주 기쁨에 겨워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 왜?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 '궁극의 근원', 모든 생명을 다 감싸는 하나의 "나 여기 지금 있음"을 던지시 보여주기 때문이다. '깨달은 나'는 바로 신성의 예시이다.

"지금"이라는 간판을 지나자마자, 아봐타 제 III부의 끝 바로 너머에서, 아슬아슬한 커브를 지나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벗어나 결국 "이 모두가 나로다" 하는 모순의 늪으로 들러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것은 미신의 늪이다.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곳이다. '하느님의 뜻'이라고도 한다.

에고(ego)의 나는 스스로를 "깨달은 나" 곧 나 외의 모두가 다 나의 일부인 나로 지어내어 아주 기쁘다.

대개 외면하고 지나쳐버리는 이 위장된 조그만 지성의 함정에 대해 너무 호들갑스럽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라. 그 함정에 걸리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다. 나도 거기에 걸려 늪속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었다. "나 여기 지금 있음"에 폭 빠져, 하느님이, 또는 어떤 높은 스승이 세상을 건져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이것은 차라리 자기가 다시 바보가 되었으면 하게 되는 순간들 가운데 하나이다. 진리의 일부 곧 "나 있음, 여기 지금"은 아는데, 아직은 그 일종의 사각지대를 뚫어볼 수가 없어, 다음에 있는 간판, 곧 "그대와 더불어"를 보기 전에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바로 마스터 코오스의 속 비밀이다. "나"라는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우리"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거기서 스스로의 자기 한정의 껍질을 뚫고 그 너머에 이르기를,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싸는 '거룩한 한'에 대해 우리가 뭔가 제대로 말이라도 하려면 먼저 반드시 남김없이 경험해야만 하는 '현존하는 현실'을 다루기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신성'을 경험하기 전에 "모두"를 지어내야 한다.

어떤 아봐타들은 자기가 미끄러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스터 코오스로 전진하지를 않는다. 그것은 마스터 코오스의 목적에 대한 어떤 오해에 기인한다. 그들은 대개 말한다. "아, 난 아봐타를 가르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또 이런 말도 할

것이다. "난 이제 나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다"고.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뭐든 성장하지 않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 누구든 전진해야 한다. 안그러면 몇 번이라도 왔던 길을 또 와야 하고 또 와야 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말이다! 어떤 수준에서는 마스터 코오스는 남들에게 아바타를 가르치는데 대한 코오스이다. 그건 안락이라는 함정을 뚫기에 대한 코오스이다. 그건 자기 자신의 발견에서 벗겨낼 다음 꺼풀을 찾아내기이다. 누구도 당신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아바타를 가르치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 자신의 의식적인 진화의 다음단계로 나감으로써 전체를 복돋는데 도움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 뿐이다. 그렇다. 우리는 당신이 마스터 코오스를 하게 하려고 애쓴다. 왜?

이유는, 마스터 코오스를 하면 '새로운 나'가 깨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훨씬 더 넓은, 더욱 편안한, 더욱 참을성 있는, 더욱 포용적인 '나'다. 그것은 '남'의 존재와 협력 없이는 찾아질 수도 경험될 수도, 또는 제대로 이해될 수도 없는 기쁨에 넘치는 '나'다. 이것이 바로 제 IV부(마스터 코오스)를 함으로써 다음 간판 "그대와 더불어"를 보게 되고, 그것을 딛고 오르는 경험이다.

이것은,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계산하며 진화의 계단을 하나씩만 오르는 '에고의 나'를 넘어서는, 계단을 단번에 두개씩 오르기이다. 이것은 남들을, 사회를, 모든 생명을 생각하는 보다 높은 '나'이다. 이것은 기쁨에 찬 '나', 영원한 '나'이며, 이것이 이 세계를 모양지을 수 있는 나이다.

마스터 코오스는 하나의 도전이다. 그것은 당신이 용감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은 믿어야 한다. 그건 과연 용감한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것은 힘든 일이다. 당신은 무방비상태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를 버려야 한다. 당신은 생생한 현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각지대를 제대로 지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이 위험들을 잘 다루어내어 보람을 거두는 것을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스타즈 에지의 아주 경험이 많은 트레이너들이 있다. 당신은 "나 있음, 여기 지금, 그대와 더불어"라는 온전한 진리를 알고 그것을 생활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의 세계적 네트워크에 끼이게 된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친다면, 그 사각지대를 돌아 반대편에서 다음 간판을 보면, 거기에는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마스터 코오스를 하는가

"...앞선 기술을 배우려고"

"...나의 이해를 키우려고"

"...나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의문들이 있어서."

"...마스터들은 교재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나의 아바타 경험을 심화시키려고."

"...나와 같은 식으로 느끼는 사람들과 유대를 맺고 싶어서."

"...남들과 아바타를 나누고 싶어서."

"...이 코오스가 아주 멋지다는 말을 듣고."

"...보다 깊은 차원의 나를 경험하려고."

"...남들의 발전을 위한 촉매가 되고자."

"...마스터로 있는 관점을 차지하려고."



올바른 프라이마리를 지어내기

내가 1월 마스터 코오스에

이틀이나

일찍 가게 된 까닭

마스터 코오스에 대한 말을 듣자마자 나는 “언젠가 나도 하고 싶다”는 프라이마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짐작하시는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18개월이 지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 프라이마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저 그러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아브라와 전화로 그걸 이야기 했을때, 그녀는 ‘안전한’ 즉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편한 프라이마리를 지어내는데 대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프라이마리를 했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마스터 코오스에 간다.”

그러자, 그것이 발동을 걸어 놓았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세컨다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할 일이 있다, 비행기 추락사고가 빈번하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 보일러의 물이 샌다, 누군가가 내 차 범퍼를 찌그러 뜨려줬다, 그리고 또 난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잖아...등등. 심지어는 꿈에서까지 세컨다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다시 아브라에게 전화를 걸어, 갑 자기 터져나온 일들을 말하고, 내가 1월 마스터 코오스에 간다는 것은 그만 잊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떤 프라이마리가 그렇게 해왔지요?”

“그런 저도 모르겠어요”하고 난 시치미를 댔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름을 3월 마스터 코오스 신청자 명단으로 옮겨 주세요. 그땐 갈 수 있을지 해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전화에대고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뭏든 그녀의 명랑한 목소리가 되돌아왔습니다. “좋아요, 그때봐요.”

닥친 모든 것들이 다름아닌 세컨다리들 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내가 그걸 지우는 방법도 알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3월에 마스터 코오스를 한다”- 이게 바로 세컨다리가 아닌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될 수 있는대로 빨리지.”

JHW



등록 절차

아바타 마스터 코스는 9일간의 코스이고 등록비는 3310\$입니다. 아바타 코스를 마쳐야 하고 당신의 마스터의 추천 또는 스타즈에지 트레이너의 초대가 있어야 합니다. 코스일정과 장소를 알고 싶으시면 www.AvatarMasterCourse.com 를 방문해 보십시오. 온라인 등록서를 작성하시고 되고 등록서가 필요하시면 스타즈에지사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407-788-3090, 321-574-4019 fax, avatar@avatarhq.com



아바타® 와 스타즈 에지 인터내셔널®

은 스타즈 에지 인터내셔널사의

등록상표 입니다.

© 저작권 2012. 모든 저작권 보유



Avatar®

Korean 10/19



Star's Edge International

237 North Westmonte Drive
Altamonte Springs, Florida 32714

tel: 407-788-3090

fax: 321-574-4019

e-mail: avatar@avatarhq.com

www.AvatarMasterCourse.com

